

야권 주도 '25만원 지원·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국립 반발해 퇴장... 민주당, 오늘 본회의 개최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31일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한 것은 주장의 사실이 아니다.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경제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법 통과로) 하청 노조가 끊임 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

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창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함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초광역 경제생태계 조성'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제안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에서 초광역권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하게 한다. 또 경제부흥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



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10년 수도권으로 순수입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 이번주 표결

과방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경찰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이 위원장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

민형배 "호남이 지지하면 대역전"

주말 민주당대회 앞 지지호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이 호남 합동연설회를 앞둔 지난 31일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 의원은 현재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위로 낮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 일원이 되고자 한다"며 "재선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 사정에 밝고, 전국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지역을 챙기는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호남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된다. 대역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민형배 선출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개호 "4개 군 삶의 질 향상" 특교세 64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울 상반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4개 군 15개 사업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며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이번 특별교부세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 및 재난 방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지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담양읍 페스티벌로 감용시설 설치사업 6억 ▲가사문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방아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담양군 청사 CCTV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억 ▲고서면 화약골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금성면 대곡·외주간 노후 교량 개설사업 3억 ▲담양군 각 읍면 재난예경보 전광판 설치사업 3억 등 6개 사업 16억 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해보면 구계소하천 재해예방사업



10억 ▲월야면 군도 7호선(정산 4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억 등 총 16억 원을 확보했고 영광군은 ▲묘량면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3억 ▲영광읍 노후위험교량 반와교 보수보강 3억 ▲백수읍 영광군 공립요양원 건립 10억 등 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장성군도 ▲장성읍 범죄 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 4억 ▲장성읍 주거지역 노후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8억 ▲북하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제 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4억 등 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예를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